

# 목장경영 위기, 신속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때



김봉석  
본회 상무

우유생산의 적신호는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폭염, 한파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반복되면서 기후에 민감한 젖소의 번식장애, 유량감소 등으로 우유생산이 급감하고 있다. 특히 금번 구제역 파동과 조사료, 배합사료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맞물려 우유생산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이미 지난 해 여름 가정우유 배달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생산기반붕괴는 현실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통상적으로 여름철 생산이 줄고, 겨울철에는 회복되기 마련이나, 생산비 폭등으로 인한 목장경영이 악화되고 구제역 파동까지 겹쳐 목장 폐업이 늘어나면서 회복될 요인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축산 관측에 따르면 2010년 12월 현재 젖소사육두수는 42만두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착유두수는 9월 현재 20만 6천두로 올해 3월 21만 6천두에 비교하면 1만두 이상 줄었고 3/4분기 원유생산량 역시 51만톤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만톤 가량 줄어 심각한 상황임을 반증하고 있다. 여기에서 금번 구제역 파동이 장기화 될 경우, 기반붕괴는 확실히 되고 있다. 특히 낙농생산기반 조성은 장기간이 소요된다. 송아지 생산에서부터 착유소까지 24~28개월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생산을 늘릴 수 없다.

1970년대에 주기적으로 발생된 바 있는 우유 부족현상은 폭발적인 우유소비 증가에 기인했다면, 현재 우유파동의 조짐은 소비측면보다는 환경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공급측면에서의 악순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개입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해소가 어렵다는 것이다. FTA, 생산비 폭등으로 인해 낙농의 미래를 어렵게 보는 낙농가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로 낙농에 참여하기가 어려

운 가운데 후계자마저 줄고 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우유부족 현상은 향후 FTA발효시 예견되는 국내 낙농시장의 혼란을 사전에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대책들로써는 이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원유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속된 말로 젖을 짜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이 농가들의 하소연이자 절규이다. 실례로 올해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우수목장 선정을 위한 심사차 전국의 목장을 방문할 때마다, 현장 회원농가분들이 예년과 다르게 너무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어, 상황의 심각성을 피부로 실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쿼터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집유주체별로 쿼터가격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낙농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은 사료를 포함한 요소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추세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상승분을 유대에 반영시키지 못함에 따라 낙농가의 소득이 악화되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이다. 타 축종과 달리 마릿수가 아닌 원유생산량으로 소득이 결정되는 낙농가들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이 내년도에는 2008년도와 2009년도분이 겹쳐, 농가들은 상환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사료구매자금은 농신보 특례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반대출로 돌릴 수도 없는 농가들이 대다수다. 때문에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쿼터를 팔거나 소를 팔아야 하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생산기반은 더욱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상환기간 연장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중요한 대책으로 연간총량제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원유생산 급감으로 인해 생산량은 쿼터도 못 채우고 있고, 집유주체별 1일, 15일단위로 유대정산하는 시스템은 젖소의 생산주기를 무시한 채 원유부족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낙농진흥회 쿼터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1월 현재 전국 총 쿼터량 대비 전국 총생산량은 88%로 이중 정상유대물량을 감안한다면 공쿼터 현상은 전국적으로 심각하다. 이를 직시하고 개인쿼터 연간총량제를 실시해 농가가 스스로 생산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15일 유대정산이나 분기 유대정산 등을 통한 생산량제도는 장기적으로 계절별 진폭을 더욱 늘릴 뿐이다. 우유가 부족한 것은 우유가 남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국민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낙농가들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FTA를 추진하게 된다면 10년, 20년 뒤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낙농가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원유생산이 부족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유를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작금의 상황이 이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목장경영 안정 대책과 소득보전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를 위한 제도개혁에 있으며,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우리 생산자들이 이미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실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현 낙농정책의 가장 큰 문제임을 정책입안자들은 직시하길 바란다. 꿈을 꾸는 데만 그친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다른 사람과 같이 꾸면서 현실화해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협회는 어렵지만 전국의 회원농가들의 지혜를 모아 현 난국을 헤쳐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신속한 정책지원을 진정 바랄 뿐이다. 현재 상황은 그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